

J2 디지털TV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신개념 디지털 TV

TV를 보면서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는 신개념의 디지털 TV가 등장했다. 지난달 열린 '2005 KIECO' 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J2'가 그 주인공이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인 이레전자가 개발한 이 제품은 본격적인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J2는 TV와 인터넷이 결합된 신개념의 디지털 TV다



디지털 TV의 미래를 보여주는 제품

디지털 컨버전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TV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TV 'J2'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제품이다. J2는 이레전자가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야심있게 준비해온 디지털 TV로 대화면으로 TV는 물론 인터넷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제품이다.

'기쁨(Joy)이 2배가 된다'는 의미의 'J2'는 TV를 시청하다가 리모콘을 눌러 인터넷 모드로 전환하면 언제든지 주문형비디오(VOD)나 음악, e북, 3차원(3D) 온라인 게임, 인터넷 노래방 등을 즐길 수 있다. 한마디로 'TV 포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편리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TV다.

J2의 장점

'J2'는 TV를 통해 인터넷 검색은 물론, 교육·게임·영화 등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TV다. TV를 시청하다가 리모콘을 이용해 인터넷모드로 전환하면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 편리한 인터페이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이 간결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졌다. 생활정보, 음악, 영화, 뉴스 등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놓았다. 콘텐츠 카테고리 전환 시 TV처럼 다양한 동영상상을 통해 전환함으로써 인터넷을 TV처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주기적인 동영상 업데이트를 제공해 보다 재미있게 TV를 즐길 수 있다.

》모든 기능을 리모콘으로 이용

'J2'는 리모콘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주문형 비디오(VOD)를 다운받아 보거나 음악파일을 감상할 수 있다. 전자책(eBook), 온라인 3D 게임, 인터넷 노래방 등 기존에 PC에서만 가능했던 콘텐츠 서비스들을 즐길 수 있다. 콘텐츠는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북토피아, TJ미디어, 한맥영회사, 와바닷컴, 테일러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콘텐츠 전문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뛰어난 가격대 성능비

'J2'는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TV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매력을 갖고 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반가운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V 포털 시대를 여는 J2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터넷과 PC 기능을 동시에 갖춘 디지털 TV 개발 붐이 일면서 등장했던 'IT 컨버전스'형 디지털 TV가 마침내 J2의 등장을 계기로 본격적인 상용화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전에도 인터넷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TV가 출시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자체 전용 브라우저를 이용해 웹서핑만 할 수 있었던 반면, 가격은 일반 디지털 TV보다 200만원 이상 비싸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그러나 'J2'는 TV를 통한 인터넷 서핑 기능은 기본으로 제공하고 여기에 전용 콘텐츠까지 제공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 TV를 시청하다가 리모콘으로 인터넷모드로 전환해 인터넷의 다양한 콘텐츠와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J2'는 PC 보급이 확대되면서 각자 방으로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거실로 모인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제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되는 제품이다.

PVR 기능을 갖춘 후속 제품도 개발

이레전자는 올 하반기 중 TV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 없이 녹화할 수 있는 개인용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PVR) 기능을 추가한 'J2 후속 제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 '틈새상품'을 선보이며 수출 위주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 회사의 전략이다. 이레전자는 향후 'J2'와 함께 디지털방송 수신전용 PDP TV, LCD TV 제품라인을 강화해 매출 1천7백~1천8백억원을 올리고 해외와 내수 비중을 6대 4 비율로 가져갈 계획이다.☑



위_J2는 인터넷을 리모콘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래_J2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名品 휴대폰 벤츠폰 II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4Gb 원낸드 메모리

名品 휴대폰 벤츠폰 II (SGH-E720)

삼성전자가 만든 名品 휴대폰의 대명사 '벤츠폰'의 후속모델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이전 모델인 벤츠폰(E700)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벤츠폰II(모델명:SGH-E720)를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 출시했다. 벤츠폰II는 전작(前作) 벤츠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고 기능도 한층 강화해 벤츠폰 사용자 뿐 아니라 신규 사용자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하반기에 처음 출시된 벤츠폰(E700)은 노르웨이 최대 일간지 아픈텐포스텐(Aftenposten)지에서 사회적 지위, 부와 전통의 상징인 '벤츠'와 닮았다는 찬사를 받아 '벤츠폰'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출시 14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히트 모델이다. 이번에 출시한 벤츠폰II는 최신형 벤츠자동차처럼 더욱 세련되고 품격 높은 디자인을 채택했다. 기존 벤츠폰이 조금 각진 모습의 중후함을 풍겼다면 벤츠폰II는 세련된 곡선으로 더욱 우아하면서도 강한 느낌을 준다. 기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카메라 기능은 100만화소로 높아졌고, 1시간 가량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 기능이 추가됐다. 외부에 MP3 기능키를 배치해 뮤직기능을 극대화시켰고, 고선명 LCD, 대용량 내장메모리, 블루투스 등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벤츠폰II(E720)는 유럽시장에 이어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4Gb 원낸드 메모리 개발

삼성전자가 1Gb 원낸드(OneNANDTM)에 이어 4Gb 원낸드 퓨전메모리를 개발했다. 4Gb 원낸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개발한 90나노 1Gb 원낸드를 수직 4단으로 적층해 4Gb를 구현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술인 QDP(Quad Die Package)를 적용해 만들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MCP(최대용량 2.5Gb, '04년 9월 개발), 모바일 D램(최대용량 1Gb, '05년 3월 개발)과 함께 차세대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기기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번 제품은 4Gb의 대용량이고, 낸드플래시보다 4배 빠른 읽기속도(108Mbyte/s), 노어플래시보다 67배 빠른 쓰기속도(10MByte/s)를 자랑해 모바일 기기기 부팅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다. 특히 1Gb 원낸드와 비슷한 초소형(11mm×13mm×1.4mm)이고, 동작전압 1.8V로 저전력형이어서 3세대 휴대폰과 다양한 모바일기기 시장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에 채택할 경우 500만 화소급 사진 250장을 연속 촬영해 저장할 수 있고, MP3 음악 120곡을 저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4Gb 원낸드 개발로 저용량 128Mb부터 대용량 4Gb까지 다양한 제품라인을 갖추게 됐고, MCP(Multi Chip Package), DDP(Dual Die Package), QDP(Quad Die Package) 등 원낸드 기반의 패키지 제품을 통해 모바일 시장의 대용량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계획이다.



세계 최초 하드디스크 내장형 HDR PDP TV DMB 노트북 X노트 익스프레스 LW40



세계 최초 하드디스크 내장형 PDP 출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하드디스크를 내장한 HDR(Hard Disk Recorder) PDP TV를 국내와 북미시장에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PDP TV(모델명: 50PY2DR)는 일반 PC 저장용량의 2~3배인 160GB 하드디스크를 채용해 HD(High Definition)급 방송을 PDP TV에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제품은 별도 저장매체 없이 HD급 방송을 최대 13시간까지, 아날로그 방송은 63시간까지 녹화할 수 있다. 또 TV를 켜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1시간 분량이 녹화되는 '타임시프트(Time Shift)' 기능을 적용해 생방송을 잠시 멈췄다 볼 수 있어 시청 도중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도 시청이 가능하다. 저장된 방송내용을 PC의 데이터 분류방법처럼 폴더로 구분해 저장할 수 있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녹화할 수 있는 예약반복 녹화기능, EPG(Electronic Program Guide) 기능을 이용해 버튼 하나로 예약 녹화설정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두 개 슬롯에 9가지 규격의 메모리카드(CF/MD/SD/SMC/MMC/ MS/MS Pro/MS Pro Duo/xD)를 지원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MP3 파일 등을 TV에 저장해 재생하는 기능이 있어 대형화면으로 영상과 음향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난시청 지역에서도 선명한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5세대 수신칩과 2세대 XD Engine을 탑재해 디지털신호를 완벽하게 처리한다. 게다가 디자인도 뛰어나 CES 혁신상, iF 디자인상, Reddot 디자인상 등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LG전자는 지난 2003년 하드디스크 내장 LCD 프로젝션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데 이어, 이번 제품을 'CES 2005'에서 선보이며 디지털TV 기술 선도기업의 입지를 굳혔다.

50인치 HDR PDP TV(모델명 : 50PY2DR) 출하기는 670만원(부가세 포함).



DMB 노트북, X노트 익스프레스 LW40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지상파DMB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소노마 노트북 'X노트 익스프레스 LW40'을 출시했다. 그동안 DMB 노트북이 시제품 형태로 전시회에 출품된 적은 있었으나 양산 형태로 시장에 선보인 것은 이 제품이 처음이다.

X노트 익스프레스 LW40은 15:9 비율의 14인치 와이드 WXGA급(1280x768) LCD를 채택해 DVD 영화 등을 시청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Fine Bright LCD 방식으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중시하는 고객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고 있다. 또 DMB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와 신호처리부를 모듈 형태로 구현해 노트북의 ODD(Optical Disc Drive)와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에 따라 DMB 모듈과 OD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동시 노트북의 무게도 줄였다. 이 밖에 DMB 수신과 녹화, 채널 등록, 방송 수신감도 표시, 채널 스캔 등의 기본 기능과 예약 녹화, 화면 캡처, 인텔리전트 업데이트 기능 등을 갖춰 편리성을 높였다.

소노마 기반의 펜티엄 M 1.6GHz CPU, 512MB DDR2 메모리, 80GB 대용량 하드디스크, ATI Mobility Radeon X600 사양을 갖춘 고급형 모델의 예상 소비자가는 199만원(부가세 포함)이다.

